

‘노마스크 크리스마스’ 광주 도심 불야성

캐롤·조형물 성탄 분위기 후끈...변화가 복적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 희망찬 새해 소망

“3년간 코로나19로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활기차고 즐거워 다행이네요.”

3년만에 노마스크 크리스마스를 맞은 지난 25일 광주 도심 곳곳은 늦은 시간까지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이날 오후 5시에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는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쳐질 줄이 없었다.

거리 곳곳의 의류 매장은 자녀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온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 손에는 어린 자녀의 손을, 다른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던 시민 박모(38)씨는 “신발을 사줬더니 반짝이는 옷도 사달라는 아들의 칭얼거림을 못이겨 예정에 없던 지출을 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까지 걸려 많이 아팠지만 모두 이겨낸 아들이 대견해 오늘 하루는 사달라는 선물을 모두 사주려고 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저녁을 먹긴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른바 ‘맛집’으로 불리는 일부 식당들은 이미 만석이였다.

때문에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니까 그러려니’하는 반응을 보였다.

골목을 타고 울려 퍼지는 캐럴과 산타·루돌프 등 조형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형형색

색의 조명이 거리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시민들은 화려한 불빛 아래서 기념촬영을 하며 웃음꽃을 피워냈다.

한 일가족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는 코로나19가 심해 어딜 나갈 엄두가 안났는데 올해는 조금 잠잠해져 밖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다”며 “반짝이는 조명을 보고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니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

년 성탄절은 정말 코로나19가 종식돼 예년처럼 활기차고 따뜻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대 유흥가로 손꼽히는 구시청도 늦은 시간까지 활기를 띠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난해와 달리 인원·시간 제한이 없어 일대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뤘다.

사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진 식당·술집 대부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일부 가게 앞은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충강도 했고

연말을 맞아 학과 친구들과 놀러 나왔다”며 “3년간 코로나19로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3년만의 노마스크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운 연말을 보내며 다가올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과 더불어 기쁜일만 가득 하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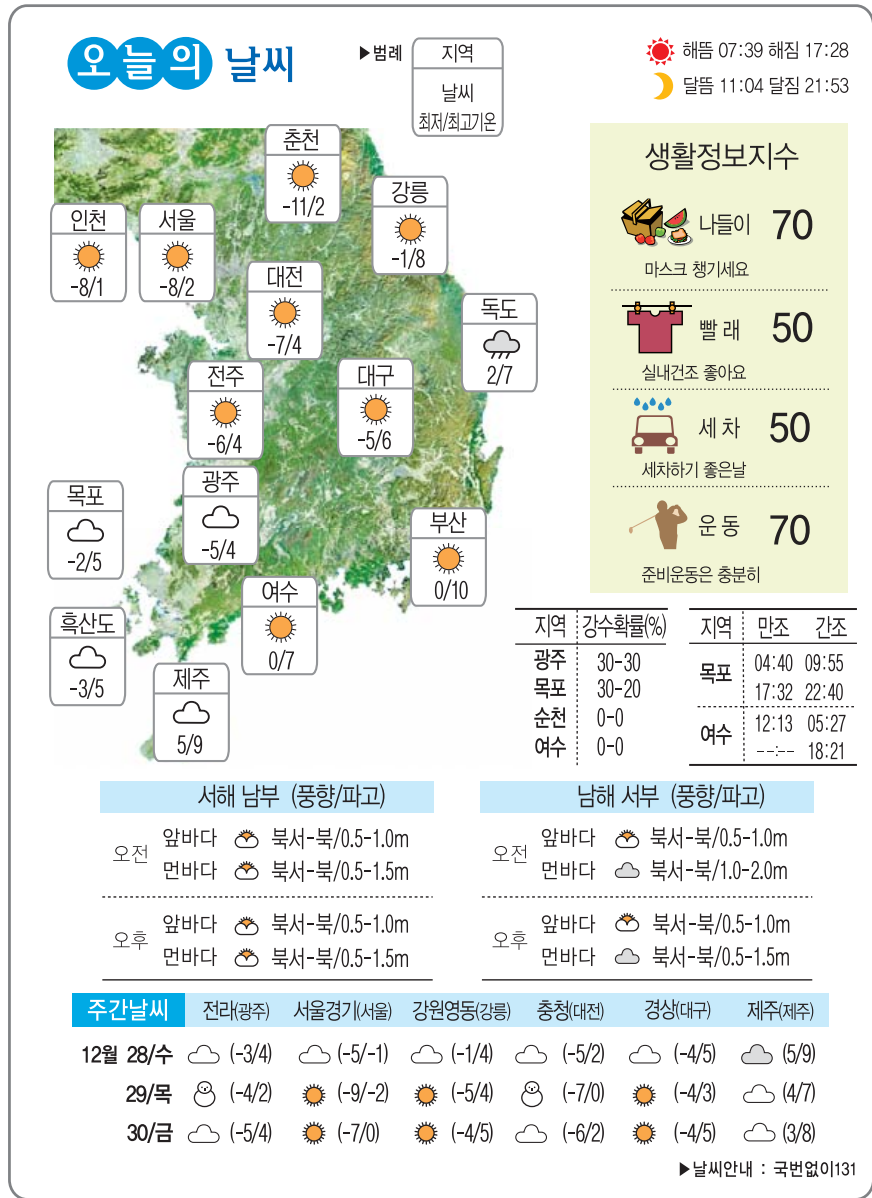
직장인 서모(28)씨는 “올 한 해 악재가 많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날이 순탄하게 지나갔으면 한다”며 “다가올 새해에는 기쁘고 희망찬 일만 가득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안재영기자



3년만에 노마스크 크리스마스를 맞은 지난 25일 광주 최대 변화가인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는 늦은 시간까지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안재영기자



동구, 치매 노인 실종 ‘골든타임’ 사수

국민정책디자인 국무총리상 수상...특별교부세 2억 확보

광주 동구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 유병률에 발맞춰 맞춤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을 사전 예방하는 ‘치매 안심 울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치매 안심 울타리’는 치매 환자들이 자주 겪는 배회 증상에 따른 실종 문제를 예방하고자 골든타임 내 치매 환자를 찾는 실종 예방시스템이다.

동구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와 돌봄 부담을 겪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역사회

가 함께 해결하고자 지역민과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시범적으로 관내 치매 어르신 거주율이 가장 높은 산수2동을 치매 마을로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치매 어르신 인적정보와 자주 가는 장소, 인상착의 등 정보가 기재된 실종 대응 카드와 치매 노인 표식표(형광 신발 끈·타이백 팔찌)를 제작해 해당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다.

/오복기자

북구, 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 북구는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

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주거복지 지원체계, 사업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심사에서 북구는 인구 20만 이상 50만 이하인 ‘나’ 그룹에서 평가 1위를 차지하며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에 포함됐다.

/안재영기자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평가

남구,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광주 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망 공유서비스 평가에서 캠프 용품을 비롯해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물품 공유센터와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와락 등 공유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원과 공유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 개선, 우수시책 추진 등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오복기자

초·중·고 친족 교직원 채용 공개 미준수 ‘수두룩’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위반 지적·감독 촉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친족 교직원을 채용한 학교법인은 이를 상시 공개해야 하지만 광주 시내 학교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3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에 따르면 광주 시 관내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다.

친족 교직원이 없을 경우 ‘미공개’로 표기해야 하지만 46개 학교는 이를 표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 석산고와 인성고만 ‘해당 없음’을 명시했다. 나머지 20개 학교(90.9%)는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밝혔으며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한 학교 중 친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송원고(12명)로 나타났다. 이어 설월여고 6명, 송일고 5명, 광일고 4명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채용된 친족은 배우자, 자녀, 동생 등부터 8촌도 있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

청은 지난 5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시 기준도 학교마다 상이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개해야 하며 광주시교육청은 미공개 학교 법인에 대해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4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맛(맛 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美(아름다움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迷(미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尾(글 미) 해남의 땅끝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숭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

CMYK